

북스

Books

달에 외계 생명체 흔적 있다는데...

편집된 역사

더글러스 케니언 지음



아폴로 10호가 달 표면에서 인공 구조물을 발견하고, 사진을 남겼다. 달 표면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분명하게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건축적 물체'라고 부른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전기 장치로 보이는 '플러그'의 흔적이 보이며, 정밀한 기계를 사용해 깎아낸 듯한 돌들도 발견됐다. 인류가 기록한 역사와 과학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 지 않는 이 같은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는 달리,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대의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이상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진 더글러스 케니언의 '편집된 역사'는 다소 허황된 외계인과 역사속의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라디오와 TV 다큐멘터리 해설자였으며, 고대의 비밀과 이상 현상을 기록한 잡지 '아틀란티스 라이징'을 창간하기도 했다.

책은 지금까지 과학의 이론과 체계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대안적 목소리를 찾아 소개한다. 인류의 기록과 일반적인 믿음을 부정하는 내용은 흥미롭다. 저자는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에 대해 소개한다. 성경과 다수의 국가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대홍수의 흔적, '신들의 번갯불'과 전기 우주론의 비교 분석 등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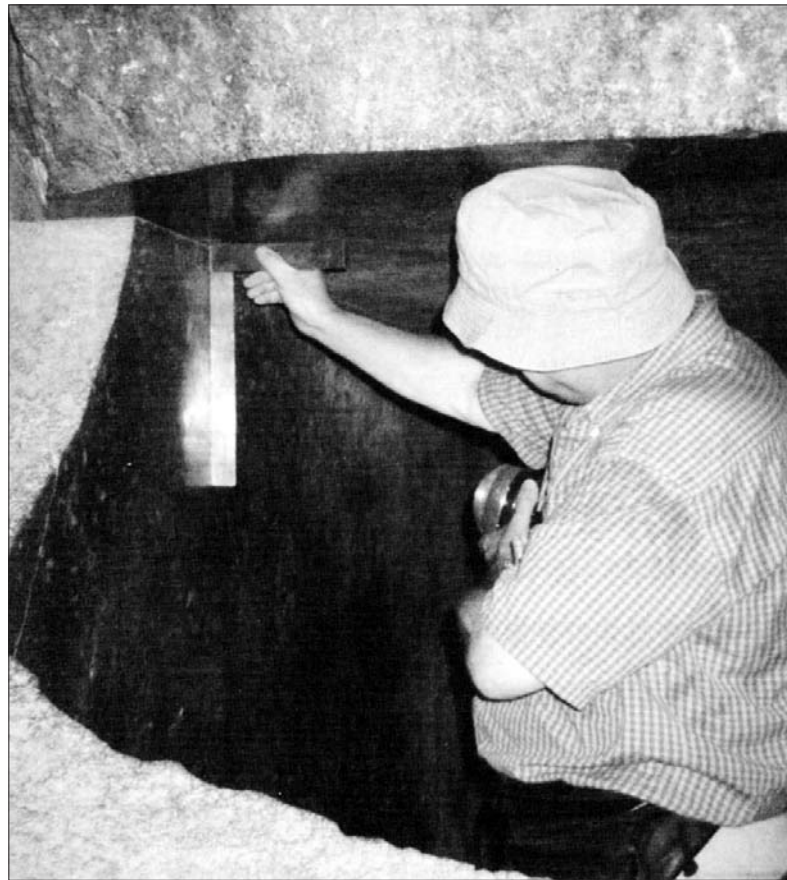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인도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고대의 대규모 전쟁은 오로지 핵전쟁만이 그 상황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다. 날아다니는 기계, 사라진 대륙 등 과학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없는 전쟁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에는 한 때 선진 고대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와 탐험가, 풍상가들의 이론을 소개한다.

또 고대 문명은 원시 사회에서는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피라미드 등 수많은 건축물과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석관은 무게가 27톤이 넘는데, 뚜껑과 그 밑에 놓인 화강암 내부 표면 사이의 각도는 거의 직각에 가깝다. 지난 2001년 거대한 석관 안에 들어가 정밀 직각자로 내부와 외부를 측정할 결과 직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가 사용한 직각자는 오차가 0.00005인치 였다고 한다.

내부와 외부가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벽들이 완벽한 평행을 이뤄야 한다. 이는 현대 세계의 정밀 가공품을 만든 공학자나 기능인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세라피움 석관 내부 표면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측정결과 세 모서리에서는 직각자가 양쪽 면과 깨끗하게 일치했다. <도서출판 AK 제공>

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달에서 발견된 수많은 구조물과 문명의 흔적 등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증거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사 등 인류는 의도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달에 우주선을 보내 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이 처럼 의도적인 '편집'으로 현대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이 많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지만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오공북기자 kroh@kwangju.co.kr

종교와 과학간 갈등은 사회·정치적 권력투쟁

1923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출간하기도 한 대표적 무신론자인 러셀의 저서 '종교와 과학'이 번역,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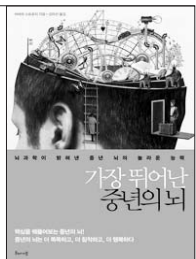


책은 지난 400년 동안 신학과 과학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을,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파장에 초점을 맞춰 조명한다. 러셀은 종교와 과학의 갈등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 보았다.

책은 1978년(전과과학사)과 1991년(신천지) 번역·출간됐다. 가 절판된 것을 새롭게 번역해 펴낸 것이다. 원제는 'Religion and Science'로 초판은 1935년 출간됐다. <동녘·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바버라 스트로치 지음



"중년의 뇌는 스무 살 때의 뇌보다 더 낫다."

저널리스트 바버라 스트로치의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는 뇌과학이 중년의 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생생한 다큐멘터리처럼 전달해주는 뇌과학 도서다. 원제 'The Secret Life of the Grown-Up Brain: The Surprising Talents of the Middle-Aged Mind'

저자는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만나 '중년의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년의 뇌'에 대해 과학이 무엇을 밝혀냈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그 연구 결과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생

생하게 전달해준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년의 뇌는 과소평가되었다. 많은 이들이 몸이 나이 드는 것처럼 뇌도 함께 나이가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 어쩌서 중년의 뇌가 뛰어난다는 것일까? 중년의 뇌가 가장 무작을 나타내는 부분은 판단력, 종합 능력, 어휘력, 직관, 통찰력 등이다. 장기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인지 기술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지각 속도'와 '계산 능력'을 제외하고, 어휘·언어 기억·공간 정향·귀납적 추리에서 최고의 수행력을 보인 사람들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40세에서 65세 사이였다.

또한, 실험 대상자들은 25세이었을 때보다 중년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수행력을 보여줬다. 나이가 들

판단력·어휘력 등은 중년 이후 탁월한 능력 지녀

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패턴을 인지하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중년의 뇌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와 함께 '누구나?'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저자는 현재 중년의 뇌가 탁월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에 대해 수십 년간의 연구결과를 집적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탁월한 뇌를 갖는 것은 아니어서 중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뇌를 가꾸느냐에 따라 그 '훌륭함'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현재 뉴욕타임스에서 의학 및 건강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해나무·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제3의 경제학=줄리엣 B. 쇼어 보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존의 주류 경제학으로는 더는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2008년에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한 저자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행복=한국학 석학인 김일규 교수가 김소월의 '산유화', 괴테의 '파우스트', 김홍도의 '빨래터', 보타첼리의 '봄' 등 동서양의 고전과 예술을 만나며 행복의 의미를 살펴본다. 팔순을 앞둔 노 교수가 세월 속에서 견져낸 행복과 삶에 대한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는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행복이 보람된 일의 성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아북·1만3000원>



▲인류가 보아온 세계사=지나해 소설집 '퀴르 발 남작의 성'으로 신선한 충격을 전했던 최재훈 씨의 첫 장편소설. 연쇄살인에 흥미를 느끼는 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실버 해머'. 이 카페의 초대를 받고 산장에 모인 여섯 명은 어느 순간부터 실재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게임에 휘말리게 된다. 꿈을 통해 구현된 살인, 광기와 집착이 불러낸 복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뇌를 자극하는 환상 등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자음과모음·1만3000원>



▲한국이 보이는 세계사=우리 근현대사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각의 역사교양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시대별로 나누어 세계사의 흐름을 좌우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속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소련의 대립, 동아시아의 성장 등의 내용을 강대국 중심의 세계사 서술에서 벗어나 약소국들을 세계사의 평등한 주제로 내세워 이야기한다. <창비·2만3000원>



▲그림, 문학에 추구하다=미술사학자 고연희 씨가 '공산무인(空山無人)', '수류화개(水流花開)' 등 우리 옛 그림 속의 문학작품을 통해 그 매력을 소소히 풀어준다. 저자는 평범해 보이는 그림이라도 그림 속 글귀를 이해하고 감상하면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문학작품으로 본 옛 그림 감상법이다. <아트북스·2만원>



▲조조-용인술의 대가='삼국지'의 주인공이자 삼국시대 위나라를 세운 조조(曹操)에 대한 평전. 베이징교육연구 부편집장으로 있는 장야신(張亞新)이 집필했다. 특히 용인술의 귀재였던 'CEO 조조'의 면모를 새롭게 조명한다. 조조의 사상과 성격, 그가 남긴 작품은 물론 조조의 부인들과 자녀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소개한다. <휘닉스드림·6만원>

▲아이폰형 인간 VS 렉서스형 인간=원칙 경제부 기자 정혁준 씨가 아이폰 신화를 창조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렉서스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평정한 도요자동차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한스미디어·1만3000원>

국제보청기

SINCE 1982 www.kjhr.com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225-9940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